

구 다렌 항로 터미널

구 다렌 항로 터미널은 과거 국제 여객 터미널로 다렌을 경유해 중국, 러시아, 한국으로 향하는 배의 일본 내 최종 기항지이기도 했습니다. 배는 오사카에서 출항해 고베에서 화물을 싣고 마지막으로 모지에 들러 석탄과 화물을 싣고 여객을 태워 한국 동해·일본해를 건넜습니다. 이곳은 매립으로 인해 수위선이 160m 이동했는데,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그보다 앞선 1929년에 지어진 것으로 정면에 있는 오래된 계단주는 과거 여객선이 정박했던 곳임을 보여줍니다. 1 층에는 사무소, 창고, 검사시설이 있었고, 2 층에는 전신국, 수하물 검사장, 여객 대합실이 있었습니다.

배 전시 코너

구 다렌 항로 터미널에서는 현재 일본의 유명한 선박의 모형, 오래된 해운 포스터와 해군 비품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, 다렌 등 기타큐슈시와 우호·자매 도시 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를 소개하는 코너와 선박용 로프 묶는 법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있습니다.

영화·예능 자료관 마쓰나가 문고

1 층에는 영화·예능 자료관 ‘마쓰나가 문고’도 있습니다. 모지 출신의 영화 기념품 수집가인 마쓰나가 다케시(1935~2018)는 2009 년에 자신의 컬렉션을 모지시에 기증했습니다. 수만 점에 달하는 컬렉션은 2013 년에 이곳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습니다. 『이웃집 토토로』(1988) 등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해 초기의 셀 애니메이션에서 사용되었던 멀티플레인 카메라도 있습니다. 컬렉션 중 일부는 자료관 바깥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